

2017 | 가을 | 29호

녹두꽃

녹두칼럼

이종민 / 동학농민혁명사업회 이사장

참여자 유족 인터뷰

이공우 / 참여자 이춘영의 증손자

기획 ① 명사대담

이이화 / 역사학자

유적지 탐방

광주·전남지역 유적지를 찾아서

포토포픽

제123주년 동학농민혁명기념대회

기획 ② 지역대담

이상식 / 광주·전남기념사업회 회장



동학혁명기념탑

東學革命紀念塔

정 렬

황토개 하늘에 솟구친
동학혁명기념탑을 우러러본다
구름 속에
반쯤 얼굴을 가린 斗升山을 본다
탑신 끝에 지금도 불타고 있는
민주주의의 횃불

나를 탑이라고 말하지 말라.
그것은 짓밟힌 자의 분노의 화신
그것은 탑이 아니라
조병갑의 가슴팍에 꽂힌 창이다.
탐판오리의 모가지에 꽂힌 칼이다.
외적을 꼬여들인 간신배들의
등골에 꽂힌 살촉이다.

탑신에는
그날 녹두장군의 뜨거운 피가 들고
배들[梨坪] 농민들의 징소리가 들린다.
그날 만석보 농민들의 피진 함성이 들려오고
고향 용두봉 독고봉이 일어선다.

除暴救民

전봉준의 살기 서린 육성.....
백성을 울린 벼슬아치들은
나를 보지 말라
내 힘은 영험하려니
나는 네 이마에 꽂힐 돌창이고
나는 네 가슴에 꽂힐 돌칼이노니.

작품설명

시집『비람들의 세상』(1978)에 실린 이 작품은 동학농민군이 전라감영군을 맞아 크게 승리를 거둔 황토현 정상에 세워진 기념탑을 소재로 삼고 있다. “지금도 불타고 있는 민주주의 횃불”, “나를 탑이라 말하지 말라”는 구절에서 동학농민혁명 정신의 현재화를 갈망하는 시인의 마음이 엿보인다. “백성을 울린 벼슬아치들.. 이마에 꽂힐 돌창이고, 가슴에 꽂힐 돌칼”이라는 대미(대목)에서는 가슴이 서늘해진다.

정 렬 정렬

시인. 1932년 전북 정읍 출생. 국학대학 국문학과 졸업. 1968년 『문학예술』에 시(詩) 「산」이 추천되어 등단하였다. 시집으로 『遠雷』(1983), 『비람들의 세상』(1978) 등이 있다. 『황토현에 부치는 노래』 창작과비평사, 1993)

【편집자주】

이 코너는 동학농민혁명을 주제로 창작·발표된 한국문단의 시 작품 중 연대기별 대표성을 지닌 작품을 소개한다.

- 02 **시로 읽는 동학농민혁명**
정렬 / 동학혁명기념탑
- 04 **녹두칼럼**
이종민 / (사)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이사장
- 06 **포토포픽**
제123주년 동학농민혁명기념대회
동학농민혁명 방송토론회
- 10 **기획 ① 명사대담**
이이화 / 역사학자
- 19 **뉴스초점**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2017년 정기학술대회
2017년 동학농민혁명 정신선양대회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조성 관련 업무협의회
전봉준장군동상건립위원회 산하 소위원회
- 23 **참여자 유족 인터뷰**
이공우 / 참여자 이춘영의 증손자
- 33 **유적지 탐방**
광주·전남지역 유적지를 찾아서
- 41 **기획 ② 지역대담**
이상식 / 광주·전남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회장
- 50 **파랑새 소식**
기념관 방문단체
- 52 **보도기사 색인**
언론에 비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표지 설명 / 황룡전적지 승전기념탑

동학농민군이 조선의 최정에 부대였던 '경군(京軍)'을 크게 격파한 전남 장성군 장산리 황룡전투지에 서 있는 승전기념탑

발행일 2017년 10월 1일 | 발행인 이승우 | 발행처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주소 전북 정읍시 덕천면 동학로 742 | 전화 063.538.2894 | 팩스 063.538.2893
이메일 1894@1894.or.kr | 홈페이지 www.1894.or.kr | 제작 용디자인

영문 모르는 영문학 교수의 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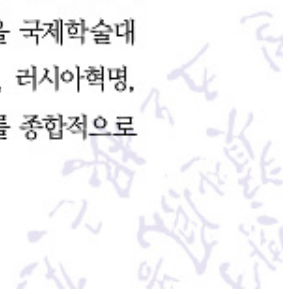
이종민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이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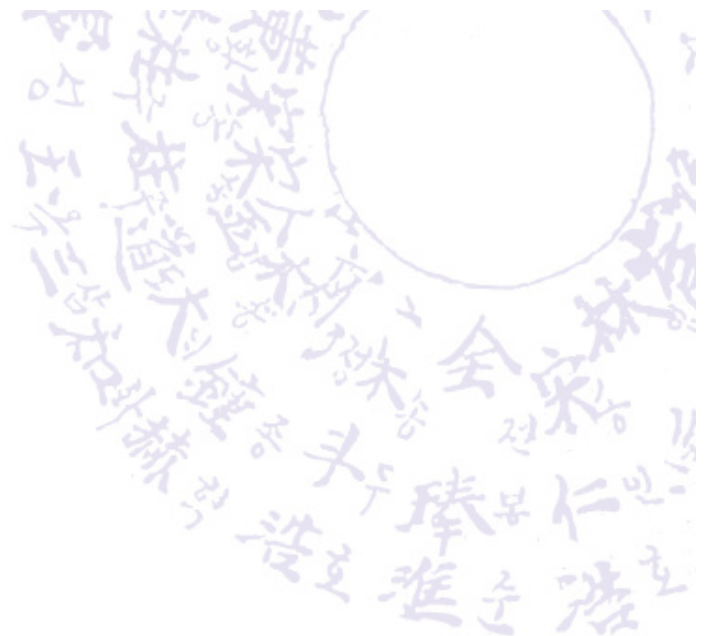
꿈이 하나 있다. 아니 둘이다. 둘이지만 서로 연결될 수 있으니 하나라 할 수 있다. 영문 모르고 수십 년간 '동학농민혁명타령'에 '전통문화 비나리'를 해온, 영문과 교수다운 것이다. 가당치 않다고 조롱할 수도 있고 터무니없다고 비아냥거릴 수 있다. 개의치 않는다. 꿈은 원래 그런 것이어야 한다고 믿고 있다. 옛 선원들을 이끌었던 북극성처럼 멀리서 인생의 나침반 역할을 해주어야 한다고 믿고 싶은 것이다!

그 하나는 전주가 전통문화가 살아 숨 쉬는 가장 한국적인 도시로 자리 잡는 것이요, 다른 하나는 전주가 세계 주요 혁명의 중심으로 우뚝 섰으면 하는 것이다.

전주의 옛 이름은 완산주, 그것과 현 이름의 앞 글자를 합하면 완전(完全)! 그래서 이곳을 '완전을 꿈꾸는 땅'이라 불렀다. 대중을 용납하지 않는 은근과 끈기, 그것을 전주정신의 근간이라 여기는 사람도 있다. 이곳에서 전통문화가 승할 수 있었던 것도 완전을 향해 끊임없이 정진하는 장인들이 있어서 일 것이다. 완전한 소리에 추임새를 아끼지 않는 귀명창들처럼 제대로 된 문화예술을 즐기고 후견하는 사람들이 있어 가능한 일이다. 혁명 또한 완전을 향한 목숨 건 몸부림이라 할 수 있다. 불완전과 불의, 요즘 유행하는 말로 적폐(積弊)를 용납하지 못하는 치명(致命)의 항거인 것이다. (전주에서 가톨릭 최초의 순교자가 나오고 최교로 많은 순교자가 배출된 것도 의 미심장한 일이다. 완전한 신앙을 꿈꾸었기에)

이 두 꿈은 분명 둘이지만 완전을 꿈꾼다는 면에서 하나이면서 둘이라 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끈다고 하여 모두 꿈일 수 없다는 것이다. 그것을 실현시킬 자산, 자격, 내공을 지니고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한 불굴의 의지와 노력이 전제되어야 한다. 영문학이라는 전공에 매몰되지 않고 30년 넘게 전통문화와 동학농민혁명을 외쳐왔으니, 적어도 꿈꿀 자격은 갖춘 것 아닐까, 조심스럽게 자부해보기도 한다. 현재도 가장 한국적인 전통문화도시를 위한 '전주문화특별시'를 주장하며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대표로 부족하지만 나름의 노력을 하고 있으니 어여빠 여기는 눈길도 분명 있으리라 믿고 싶기도 하다. 이를 위해 올가을 국제학술대회 하나를 준비하고 있다. "세계 5대 혁명의 현재적 의미"를 주제로 독일농민전쟁, 프랑스혁명, 러시아혁명, 중국태평천국혁명, 그리고 동학농민혁명! 세계 역사의 결정적 변곡점이었던 이들 혁명의 의미를 종합적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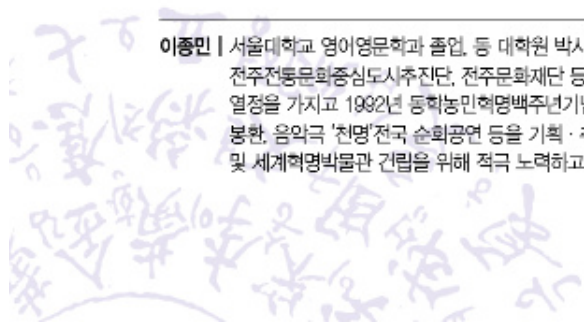
비교 분석함으로써 동학농민혁명의 의미를 세계사적으로 조명해보자는 것이 그 핵심 취지다. 이를 위해 해당 국가의 주요 연구자들에게 이미 초청장을 보냈으며 이들과 심도 있는 토론을 해줄 국내 전문가들도 섭외중이다.

이를 기반으로 전주에 '세계혁명박물관'을 세우고 싶은 저의도 굳이 감추지 않겠다. 더 나아가 요즘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는, 4.3이나 5.18과 더불어 그 뿌리라 할 수 있는 동학농민혁명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으면 하는 소망도 숨기고 싶지 않다.

혼자만의 꿈은 허황될 수 있다. 여럿이 함께 꾸고 노력하면 역사가 되기도 한다. 전봉준장군의 꿈이 농민들의 염원과 이어지면서 동학농민혁명의 역사가 되었다. 혁명을 기리는 것은 그 역사를 바로 세우자는 것이요,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은 시지포스의 바위를 되 올리는 것만큼의 중단 없는 헌신과 노력을 요구한다. 그렇지 않으면 혁명의 역사도 왜곡된다. 그래서 또 다른 혁명을 필요로 하는 상황으로 전락할 수 있는 것이다. 긴장을 늦출 수 없다.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제정 건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 언제든 역사의 흐름은 영동한 방향으로 흐를 수 있다. 영문학교수이지만 모르쇠 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오늘도, 스스로는 즐기지만 남이 언급하면 부끄러워지는, 영문 모르는 영문과교수라는 말, 듣지 않기 위해 서라도 발버둥 해보는 것이랴!

이종민 | 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졸업, 등 대학원 박사학위 수여, 전북대 교수, 전전북대 인문대학장,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친년전주시랑모임, 전주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단, 전주문화재단 등 시민사회활동에 적극 참여하였다. 특히 동학농민혁명 역사바로세우기 사업에 깊은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1992년 동학농민혁명백주년기념사업회 창립을 통해 백주년 기념사업 추진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동학농민군 지도자 유골 봉환, 음악극 '천명' 전국 순회공연 등을 기획·추진하였다. 현재, (사)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이사진을 맡아 전주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및 세계혁명박물관 건립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제123주년 동학농민혁명기념대회 성황리에 열려

지난 9월 18일과 19일 이틀간 동학농민군 최초 전승지인 황토현전적지에서 제123주년 동학농민혁명기념대회가 펼쳐졌다. 이날 대회에는 송하진 전라북도지사, 김생기 정읍시장, 장학수·최은희 전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부위원장, 김춘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유진섭 정읍시의회 의장, 안길만 정읍시의회 경제건설위원장을 비롯하여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 천도교인, 전국 기념사업단체 대표자 등 700여 명이 참가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이틀간에 걸쳐 펼쳐진 기념대회는 18일 오후 2시부터 '동학농민혁명과 한국 근현대사'라는 주제의 학술대회와 함께 역사체험 프로그램 및 문화공연이 펼쳐졌고, 19일에는 길놀이로 시작으로 제123주년 기념식, 특별공연, 오찬 순으로 진행되었다. 기념식에서는 동학농민혁명 정신선양사업의 확산을 위해 기념재단에서 추진한 동학농민혁명 주제 스토리텔링 공모전에서 입상한 작품에 대한 시상식이 있었다. 수상은 대상에 김진영(갑오백성, 연극 사나리오), 최우수상에 문수진(뮤지컬 대본), 우수상에 이원희(연극 사나리오) 씨가 각각 수상하였다. 또한 동학농민혁명 정신선양사업에 기여한 사람에게 공로패가 수여되었다. 공로패는 함기영(동학농민혁명유족회 이사), 채길순(병지전문대 교수), 진운식(고창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부이사장) 수상하였다. 한편, 동학농민혁명유족회 이기곤 이사장은 동학농민혁명 가치를 높이고 그 정신 계승·발전에 기여한 김생기 정읍시장에게 30여만 유족을 대표하여 감사패를 전달하였다.

▣ 기념대회 특설무대 전경



▣ 스토리텔링 공모전 시상

대상 ▶

좌 | 김정배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관
우 | 김진영 | 대상 수상자



최우수상·우수상 ▶

좌 | 이승우 | 기념재단 이사장
중 | 문수진 | 최우수상 수상자
우 | 이원희 | 우수상 수상자



▣ 공로패 시상

공동추진위원장 ▶

좌로부터 | 이승우 기념재단 이사장 이정희
천도교 교련 이기근 동학농민혁명유족회
이사장

수상자 ▶

네번 째부터 | 함기영 동학농민혁명유족회
이사장 진유식 고정기념사업회 부이사장,
임형진(채길순 대리수상)



▣ 특별공연 ▶

전주시립국악의단 외



▣ 어울림 한마당 ▶

정읍시립농악단·단풍미만농악단



KBS전주방송총국 생방송 심층토론
동학농민혁명 시대정신으로



동학농민혁명 123주년을 기념하여 KBS전주방송총국에서 지난 9월 13일 동학농민혁명 애국애족 정신의 범국민적 확산을 위한 방송토론회가 열렸다. '동학농민혁명 시대정신으로'라는 주제로 생방송으로 55분간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이이화 역사학자(전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 김춘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이종민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이사장(전전북대 인문대학장), 이승우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 등이 출연하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일제강점기 등을 통해 반란사건으로 왜곡·축소되어온 동학농민혁명의 숭고한 애국애족 정신을 범국민적으로 선양하기 위한 사업추진의 활성화가 필요성과 함께 선양사업의 새로운 지평 확정의 기점으로 작용할 국가기념일 제정을 조속히 매듭지어야 한다는 것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또한 동학농민혁명 정신선양사업의 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기념공원 조성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모든 역량을 한데 모아야 한다는 점 등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 특별법에 따라 반역자에서 혁명군으로 명예를 회복하였고 국가의 공인을 받은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동학농민혁명이 반봉건 반침략의 민족운동으로 자리매김을 한 것입니다. 이게 한국사 교과서에도 반영되었습니다. 오늘날에는 한국 근현대사에서 동학농민혁명을 시작으로 3.1운동, 4.19혁명, 6월항쟁으로 이어져 촛불시민혁명으로 결말을 지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주운동, 통일운동의 정신적 자산이 되어야 합니다. ”

일 시_ 2017년 7월 26일 (수) 10시

장 소_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회의실

대 담_ 이이화 | 역사학자, 전봉준장군등상건립위원회 이사장
문병학 | 기념재단 기념사업부장



이번 호 명사대담은 2017년 7월 26일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재야 사학자 이이화 역사학자를 만나 진행하였다. 이이화 선생은 1986년 역사문제연구소를 설립하여 극심한 부침으로 점철된 한국 근현대사의 굴절과 왜곡을 바로세우고, 역사의 대중화 구현에 크게 기여하였다. 특히 1989년 갑오농민전쟁백주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를 출범시켜 동학농민혁명 관련 사료발굴 및 편찬사업에 힘을 기울였고 전국 각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백주년 기념사업 단체 창립의 산파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였다. 그 결과 역사문제연구소 '백추위,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동백특위', 동학농민혁명100주년기념사업회(전북 전주) 등이 참여한 동학농민혁명백주년기념사업단체협의회 창립으로 이어졌다. 이후 1994년 3월에는 반란군의 후손으로 숨죽이며 살아온 참여자 유족의 모임인 동학농민혁명유족회 창립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 주요경력 | 역사문제연구소장, 갑오농민전쟁백주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 대표, 동학농민혁명백주년기념사업단체협의회 공동대표, (사)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이사, (재)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 동학농민혁명참여자에 회복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서원대 석좌교수, 전봉준동상건립위원회 이사장 등

| 주요저술 | 『한국사 이야기』(전 22권), 『인물로 읽는 한국사』(전 10권), 『한국의 파벌』, 『하균의 생각』, 『동학농민전쟁 인물 열전』, 『동학농민전쟁 사료총서』(전 30권, 편서), 『조선후기 정치사상과 사회변동』, 『민란의 시대』, 『전봉준, 혁명의 기록』, 등 100여 권

문병학 선생님 요즘도 이런 저런 역사관련 단체모임과 저술 활동 등으로 많이 바쁘시죠? 먼저 『녹두꽃』 독자들께 선생님의 근황을 말씀해주세요.

이이화 네 요즘 조금 바쁩니다. 근래 전봉준동상건립위원회 이사장을 맡았어요. 늙고 역량이 없어서 사양했는데 맡기네요. 신영우 전성준 손주갑 등 몇몇 분이 힘이 되어주고 있어요. 여기저기 인터뷰도 하고 친구와 친지들을 만나면 동상건립위원회 가입해 달라고 회원 카드도 내밀고 은행 구좌가 적인 명함도 주고.... 또 여러 단체에서 요청하는 동학농민혁명 등 한국사 강의도 나가요. 한국사 국정교과서 파동 탓인지 한국사에 대한 관심이 많아져 강의 요청도 많습시다.

문병학 선생님께서 역사 관련단체 활동 등을 하도 많이 하시니까 어떤 얘기를 시작으로 대담을 풀어가야 하는지 얼른 가닥이 잡히지 않습니다.(웃음) 지면 제약도 있고 하니 대담은 동학농민혁명 관련 얘기로 국한하겠습니다. 역사문제연구소를 설립한 때가 1986년이지요? 벌써 30년 전의 일이네요. 역사문제연구소 창립과 그 활동이 가지는 의미가 다양하겠지만 그 중에서도 ‘역사 대중화’라는 단어가 얼른 떠오릅니다. 역사문제연구소의 설립취지랄까 지향했던 점 등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이이화

역사문제연구소를 설립할 때는 6월 항쟁이 세차게 일어날 즈음이었습니다. 한국사 전공자들이 여러 사정으로 근현대 연구를 소홀히 다루고 있었어요. 독재정권 탓이었지요. 그리해 19세기와 일제시대 그리고 해방 후 이승만 독재 등을 연구하고 발표하는 연구단체가 필요하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어요. 임헌영 박원순 서중석 등 한국 근현대사에 관심이 있는 인사들과 연구자들이었죠. 그리해 역사문제연구소를 발족시키고 이를 대중화하자고 각오를 다졌지요. 그러자 일반의 관심이 대단히 높아졌습니다. 진두환 노태우 정권이 우리 연구소를 주목도 하고 말입니다. 계간지 『역사비평』을 발행해 대중화에 나섰습니다. 우리가 비평회나 발표회를 가지면 수백 명이 모여들었어요.

문병학

역사문제연구소 활동과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역사문제연구소 산하 갑오농민전쟁백주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약칭 백추위) 때 활동한 분들이 이후에도 동학농민혁명 연구는 물론이고 전국 각 지역에서 펼쳐진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추진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신영우 배항섭 김양식 왕현종 김선경 송찬섭 박준성, 그리고 지금은 고인이 된 우윤 선생님 등등 많은 분들이 떠오르는데... 그때 그 시절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이이화

1989년 봄입니다. 근현대사 중에 주목되는 동학농민전쟁에 대한 연구와 사료를 모아야 한다는 의견을 모았어요. 동학농민혁명 백주년을 앞두고 심도 있는 연구를 해야 한다는 뜻을 맞추었어

요, 지금 거론한 인사들은 모두 진보적인 소장그룹의 근대사 전공자들입니다. 당시 신영우 교수를 때고는 모두 강사급이거나 박사과정을 밟고 있었어요. 의욕이 넘치는 연구자이었다는 생각이 지금도 듭니다. 우리 내부에서 정기적으로 세미나를 벌이고 연구 발표도 가졌어요. 현장을 살펴보는 역사기행도 다녔고요. 애로가 많았습니다. 그때 봉고차를 한 대 빌려 3박 4일 정도 답사를 했어요. 여관비와 밥값이 모자라 짬뽕 댄 적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지방의 관계 인사들이 경비에 보태라고 봉투를 주기도 했어요. 하도 경비가 모자라던 판이라 그냥 받았지요.



문병학

선생님께서 1980년대 후반부터 백주년 때까지 전국 각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학술대회, 역사특강 등을 통해 백주년 기념사업 추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단체창립의 산파역할을 아주 독특하게 수행하셨지요? 경북의 상주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창립준비위원회가 개최한 학술회의 등등 여러 지역의 역사강연이나 학술회의 때는 제가 선생님을 모시고 갔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렇게 해서 백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강원도, 서울 등 9개 단체가 창립되었고, 마침내 1993년 12월 13일 전주에서 동학농민혁명백주년기념사업단체협의회(약칭 동단협)가 결성되었습니다. 그때 선생님께서 동단협 공동대표로 추대되었고, 동단협이 주최한 백주년 기념사업이 성공적으로 펼쳐졌습니다. 백주년 기념사업이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의미에 대한 범국민적인 인식 제고로 이어졌고, 여기에 힘입어 2004년 특별법이 제정되기에 이르렀습니다. 특별법이 제정된 후 동단협과 유족회 연합하여 재단법인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으로 거듭났고, 나중에 이 재단의 정신선양사업은 특수법인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으로 승계되었습니다. 선생님께서 그 재단의 이사장을 맡아 헌신하셨는데, 당시 재단 운영비가 없어서 이사님들과 운영위원들께 꽤 큰 액수의 회비를 각출하고, 뜻있는 분들의 서화(書畵)를 기증받아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판매하기

도 했는데, 그때는 많은 분들께서 역사를 바로세우는 뜻깊은 일이라며 기꺼이 응해주셨지요. 그 시절에 대해 얘기해주십시오. 그때 사무실이 경복궁 안에 있어서 아주 신났었는데...

이이화

동단협이 결성될 적에 제가 찾아다니던 지방의 기념사업 단체의 대표와 향토사학자들을 한 자리에 모아 단체협의회를 만들었지요. 지금 고인이 된 우윤 씨의 노고가 많았습니다. 동백장 넓은 방이 전국 각 지역에서 달려온 기념사업 관계자들로 꽉 들어찰 정도로 호응이 대단했어요. 전주에 있는 동학농민혁명백주년기념사업회 인사들이 고생을 많이 했어요. 동단협 창립 초기부터 문병학 선생이 전주사업회 사무국장과 겸해서 동단협 사무국 일을 맡아보았지요? 그때 동단협에 참여했던 분들의 의지와 열기가 참 높았어요. 백주년 행사가 잘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아주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최초로 각 지역이 연대한다는 역사적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리해 백주년 행사를 성공적으로 잘 치렀습니다. 전주시청 앞 광장에서 행사를 했지요. 그때 한승헌 이사장을 비롯해서 신순철 사무총장, 이종민 교수 등 전주사업회 임원들의 노고가 참 많았습니다. 그런 노력의 결실로 2000년에는 대한민국 국회에 '동학농민혁명 국회의원 연구모임'이 만들어지게 되었지요. 그때 회장을 김태식 국회의원이 맡았고, 정읍출신 윤철상 의원이 총무를 맡아서 수고를 많이 했지요. 국회의원 연구모임 주축로 국회에서 토론회도 가지고 역사특강도 갖고 그러면서 특별법 제정을 준비했지요. 저와 신순철 신영우 우윤 정남기 등이 국회에 나가 그 당위성과 의의를 설명하느라 바빴습니다. 2004년 특별법이 제정된 후 민간 주도의 재단이 발족되었고,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심의위원회도 구성되어 문광부에서 14명의 직원이 파견을 나와서 업무를 보았지요. 저는 민간의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직과 심의위원회의 명예분과 위원장직도 맡아보았습니다. 마침 그 시기에 문광부 소속의 문화재청 청장이 유홍준 교수였어요. 그래서 문화재청이 있는 건물 아래 층에 비집고 들어가 사무실을 얻었지요. 지금 고궁박물관 건물입니다. 다른 단체에서 부러워하더라고요. 재단 설립은 여러 인사들의 후원이 있어 이루어졌습니다. 목적사업비를 받아 명예회복사업을 추진했으나 사무원 보수도 주어야 하고, 필요한 다른 사업도 진행해야 했기 때문에 늘 경상비가 모자랐어요. 그래서 서화전을 열기로 했어요. 민족미술협회의 김정헌 교수와 화가 임옥상 교수와 전각가 채의진 선생 등 여러 화가들이 서화전에 작품을 내주었어요. 이 작품을 대한변호사협회 박재승 변호사와 최열 환경운동가, 유족으로 언론재단 이사장이었던 정남기 선생 등이 작품을 구입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근근히 끌어갔습니다. 그 어려울 때 문병학 선생도 사무처장을 맡아보았잖아요? 요즘 생각해보면 그래도 그때가 참 보람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윤현궁 아래로 사무실을 얻고 이사를 했고, 정기로 회비를 내는 이사를 10여 명 두고 재단의 운영경비를 충당했지요. 모두 고마운 분들입니다. 특히 상임 이사를 맡은 신영우 교수의 노력이 컸습니다. 특별법에 따라 문광부 주도의 특수법인 기념재단이 설립될 때 민간 재단의 모든 재산과 사료와 비품을 넘겨주었습니다. 그때 재단이 빛을 쬐고 있었는데 저와 신영우 교수, 신순철 교수, 전봉준장군 양손인 전성준, 유족회 손주갑 선생 등이 빛을 모두 갖고 특수법인으로 넘겼지요. 빛 한 톨 없이 모든 재산을 넘겨 준 것이지요. 그런데 이후 특수법인으로 출범한 기념재단 임직원들이 고마움을 몰라주는 것 같아 좀 섭섭했습니다.



문병학

역사문제연구소의 여러 성과들 중 『동학농민전쟁 사료총서』(전 30권)를 발행한 일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사료총서가 1996년 발간되어 동학농민혁명 연구의 지평을 확장시키는데 크게 기여했지요? 여기 저기 흩어져 있는 사료를 모으는 일이 쉽지 않았을 텐데, 사료를 모으는 과정과 출판하면서 겪었던 일들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이이화

본래 1950년대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동학란 기록이라는 이름으로 사료집이 발간되었습니다. 관찬(官撰) 사료 중심이어서 빠진 게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 연구자들이 중심이 되어 수집한 사료를 모으고 새로 도서관 등을 조사해 30권짜리로 편집해 간행했습니다. 일본 사료는 강창일 교수(현 국회의원)와 목포대 고석규 교수가 수집해주었고 실무는 우윤 선생과 왕현종 교수가 맡아 애썼지요. 또 부록으로 동학과 천도교 사료를 편집했는데 고 표영삼 선생이 전적으로 담당했습니다. 서지가인 이종학 선생이 사운연구소의 이름으로 출간에 주었습니다. 이 사료집이 간행되자 연구자들이 많이 이용하였고 유족과 기념단체 관계자들이 많이 활용하였습니다. 제가 기념 사업을 한 일 중에 가장 보람 있는 사업이었다고 자부합니다.

문병학

동학농민혁명 백주년 기념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서 혁명의 의미가 범국민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그런 흐름이 김대중 국민의정부 때 '동학농민혁명 국회의원 연구모임'(회장 김대식)으로 이어졌고, 특별법 제정을 위한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 준비과정을 거쳐 마침내 참여정부 때인 2004년 대한민국 제17대 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동학농민혁명참여자등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실로 110년 만에 반란사건이 혁명으로 명실상부하게 복권된 것인데, 이때 감회를 말씀해주시죠.



이이화

앞에서도 간단하게 언급했지만 백주년 기념행사는 여러 곳에서 거행되어 그 의미를 널리 알리는 데에 큰 공헌을 하였다고 봅니다. 성공적인 백주년 기념사업 추진이 동학농민혁명군 서훈사업 추진으로 이어졌고, 백주년 기념사업을 펼친 때로부터 꼭 10년 만에 특별법이 제정되었어요. 이런 측면에서 동학농민혁명 100주년 기념대회는 큰 의미를 갖습니다.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윤철상 의원이 여야 합의를 받으러 다니는 등 애를 많이 썼지요. 특별법에 보상이나 유족들에 대한 지원이 빠져 있어 조금 섭섭하긴 했지만...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인사들이 협력해 준 공로도 크지요. 아무튼 특별법에 따라 반역자에서 혁명군으로 명예를 회복하였고 국가의 공인을 받은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동학농민혁명은 반봉건 반침략의 민족운동으로 자리매김을 한 것입니다. 이게 한국사 교과서에도 반영되었습니다. 오늘날에는 한국 근현대사에서 동학농민혁명을 시작으로 3.1운동, 4.19혁명, 6월항쟁으로 이어져 촛불시민혁명으로 결말을 지었다는 평가와 함께 미완의 혁명이 완성 단계로 나가는 중요한 사건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주운동, 통일운동의 정신적 자산이 되어야 합니다.

문병학

일제강점기와 해방 후 세계사적 차원의 동서냉전체제 구축 과정에서 민족내부의 좌우대립, 민족 분단, 한국전쟁 등 극심한 정치적 혼란 등으로 가뭄뒀던 한국 근현대사의 부침 속에서 동학농민 혁명은 반란사건으로 치부된 채 역사의 뒷안길에 버려져왔습니다. 이런 속에서 참여자 후손들은 숨죽이며 살아야했습니다. 역사문제연구소 '백추위'활동 시절 선생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기울였던 부분이 바로 동학농민혁명 유족회를 창립하는 것이었습니다. 전국에 흩어져 있는 유족들을 찾아 규합하여 마침내 1993년 동학농민혁명유족회창립준비위원회를 발족시켰고, 100주년이 되던 1994년 3월 3일 고려대 교우회관에서 동학농민혁명유족회 창립대회가 개최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로부터 23년 만인 지난 5월 8일 동학농민혁명유족회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아 사단법인으로 거듭났는데, 이를 바라보는 선생님의 감회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 유족회 창립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움이나 기억에 남는 일화가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이이화

네, 그렇습니다. 우리 팀이 답사를 다니고 조사활동을 벌이면서 현지에 있는 향토사학자인 최현식 최순식 이기화 이런 분들을 만나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생생한 스토리텔링이지요. 또 유족들을 찾아다니면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조상의 얘기는 어떻게 들었는지를 수집했습니다. 비참한 얘기들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고향에서 도망쳐 성을 바꾸고 머슴살이를 하였다든지, 할아버지는 동학을 입 밖에 내지도 않았으나 할머니가 소곤소곤 들려주었다든지, 도망치면서 아이를 버리고 가서 남의 집에서 자랐다든지 죄다 서러운 얘기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수십 만 명이 죽었다는데 우리가 찾아낸 유족 숫자는 100여 명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산발적으로 만날 게 아니라 이들을 모아 대화도 나누고 친목도 도모하고 조상의 명예를 회복하는 사업에도 협조하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서울 중구 필동에 있던 역사문제연구소에서 수 십 명을 모아 서로 대화하는 시간을 주선해 주었습니다. 차츰 그 규모가 커졌고 정식으로 동학농민혁명유족회를 창립하기 위한 준비위원회 발족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분들이 만나면 얘기가 끝도 없지요. 몇몇 유족 분들이 대단한 열성을 보여 유족회가 발전을 거듭하였고, 현존까지 포함해 그 수도 1만여 명이 넘었습니다. 다만 안타가운 점은 손자 대까지 만이라도 의료비나 기초생활비 등 국가보조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살짝 귀뜸 하나 해줄까요? 특별법이 통과될 때 야당인 한나라당에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후손이 독립유공자 후손 대우를 받는 것에 대해 반대하여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문병학

지난 2016년 8월 박원순 서울시장님이 전북 전주를 방문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전봉준 장군 순국 터로 알려져 있는 전옥서 좌감옥 터(서울 종로구 서린동)에 동상을 건립해야 한다고 강하게 건의하였습니다. 이후 서울시와 협의를 거쳐 지난 4월 서울특별시 법인으로 (사)전봉준장군동상건립위원회가 출범했고, 오래 전부터 서울 남산공원에 전봉준장군 동상을 건립하기 위해 노력해온 선생님께서 동상건립위원회 이사진을 맡으셨습니다. 범국민적인 성금으로 동상을 건립하려고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데, 동상 건립의 역사적 의미나 동상 건립을 위한 사업추진 경과 등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이이화

저는 한참 전부터 서울에 전봉준 동상 건립을 위해 문제를 제기하고, 남산의 안중근의사기념관이나 백범공원 언저리에 세울 것을 주장하면서 건의도 했지만 어려움이 많아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문병학 선생이 박원순 시장에게 건의해서 구체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서울에서 박원순 시장을 만났을 때 기념재단 문병학 부장의 건의가 아주 감동적이어서 부지를 제공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더라고요. 애썼어요. 저는 종로의 전옥서 터는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답사를 해보니 종로의 전옥서 터가 서울시 소유의 땅이었습니다. 개인 소유였다면 성사되기 어려울 것 아닙니까? 행운이 찾아온 것입니다. 서울시에서 이를 허락해 주어 지금 신영우 상임이사과 하정우 대외협력팀장이 종로구청과 적극적으로 협의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원만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금 전봉준장군동상건립위원회는 국민모금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제가 농담 삼아 1만원 이상, 1억 미만만 내달라고 부탁하고 다닙니다. 동상 작품도 공모형식을 빌어 결정할 것입니다. 또 1만원 기금 내고 동상이 건립되면 아들 손자 데리고 동상 앞에서 가서 내가 기금을 내 세웠다고 자랑하라고 알려줍니다. 국민의 호응이 좋습니다. 잘 성사되리라 믿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부탁의 말을 드리면 민족의 상징이 될 전봉준동상 건립기금을 내는 것은 액수가 적고 많음을 떠나 민족통일 또는 민주가치의 실현에 동참한다는 의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병학

귀한 말씀 더 오랜 시간 듣고 싶은데, 지면의 제한 등으로 인해 아쉽지만 오늘 대답은 이쯤에서 마쳐야할 것 같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긴 시간 내주신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선생님 내내 강건하시기를 빕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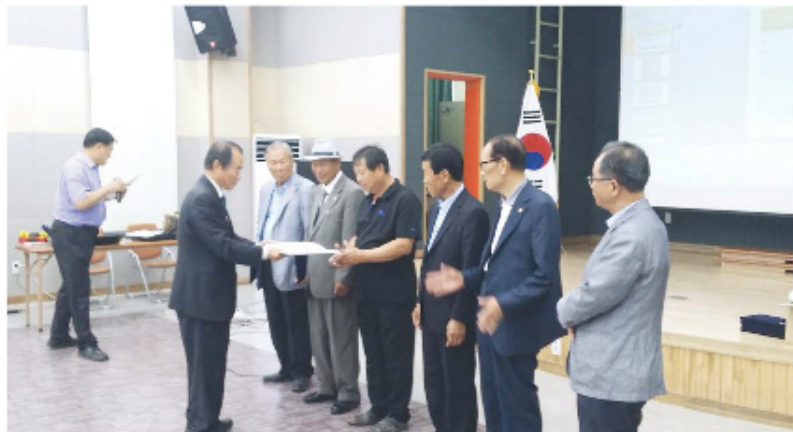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2017년 정기 학술대회 ‘동학농민혁명과 한국 근현대사’ 성황리에 열려

지난 9월 18일 황토현전적지에 자리하고 있는 동학농민혁명 기념교육관 대강당에서 '동학농민혁명과 한국 근현대사'라는 주제로 2017년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정기 학술대회가 열렸다. 13시 30분 개회식을 시작으로 진행된 이날 학술대회는 이이화 역사학자(전봉준장군동상건립위원회 이사장)의 '동학농민혁명과 한국 근현대사의 흐름'이라는 기조강연, 이영호(인하대 교수)의 '동학농민전쟁의 계승과 노선분화', 유비다(고려대학교 연구교수)의 '동학농민혁명과 3.1운동', 조규태(한성대학교 교수)의 '동학농민군의 민족운동 - 박준승을 중심으로', 박준성(역사학연구소 연구원)의 '동학농민혁명과 한국 민주주의의 전개' 등 주제발표 순으로 이어졌다. 주제발표 이후 진행된 종합토론에는 고석규(목포대학교 교수), 신영우(충북대학교 명예교수), 허수(서울대학교 교수), 김양식(충북연구원 수석연구원), 배항섭(성균관대학교 교수) 등이 참여하였다.



2017년 동학농민혁명 정신선양대회 성황리에 열려

지난 6월 30일부터 7월 1일까지 이틀 동안 고창군 선운사유스호스텔 및 고창지역 일원에서 '동학농민혁명 정신선양대회 및 참여희생자 위령제'가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시단법인 동학농민혁명혁명유족회 이기곤 이사장을 비롯하여 박우정 고창군수, 김생기 정읍시장, 최인규 고창군의회위원장, 이승우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 전해철 전봉준장군기념사업회 이사장 등 200여 명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이 대회는 동학농민혁명유족회 주관으로 매년 지역을 순회하며 진행하고 있는데, 지난 해 전주시 개최에 이어 올해는 동학농민혁명 최고지도자 전봉준 장군 출생지이자 무장포고문인 공포된 고창군에서 열렸다. 전국 각 지역에서 참가한 참여자 유족을 중심으로 펼쳐진 이번 행사는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의미를 담은 홍보영상 상영, 기념식, 참여희생자 위령제, 시단법인 인가에 따른 이사 위촉식, 정신선양사업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갑오선열의 숨결이 서린 유적지 답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조성 관련 업무 협의회 열려

지난 7월 14일(금)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은 정읍시청 회의실에서 김생기 정읍시장을 비롯한 간부진과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조성사업에 따른 제반 업무를 공유하는 협의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2004년 제정된 [동학농민혁명참여자등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을 근거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기재부의 적정성검토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2015년도까지 전액 국비사업으로 추진되던 기념공원 조성사업에 대해 합리적인 근거도 없이 뒤늦게 지방비 매칭을 요구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음으로 여기에 대해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 적극 대응하자는 논의가 있었다. 또한, 기념공원 조성 부지 내에 있는 공유지 무상양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 법사위 계류 중인 특별법 개정안의 통과를 위해 힘을 모으자는 논의가 있었다. 또한, 차후 기념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기존 황토현전적지 내에 구시설물들과의 연계성을 강화할 수 방안을 문화재청 등과 모색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되었다. 기념공원 조성에 필요한 건축허가, 우회도로 건설 등의 사업추진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을 확인하였다.



전봉준장군동상건립위원회 산하 소위원회 열려

지난 8월 5일(토) 16시부터 서울 종로구 종각 맞은 편 조선시대 전옥서 좌감옥 터인 영풍빌딩 도로변에 전봉준 장군 동상을 건립하기 위하여 동상제작소위원회 및 기금모금소위원회 실무위원회 회의가 개최되었다. 그동안 6차례 개최된 동상제작소위원회는 오는 9월 중순 동상제작 모형을 공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기로 하였으며, 동상 건립기금의 범국민적 모금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전봉준장군동상건립위원회 이이화 이사장, 신영우 상임이사, 이기곤·이상면·정남기 이사, 하정우 대외협력본부장, 손주갑 기금관리담당 등이 참석하였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이춘영의 증손자 이공우

Q 선생님 반갑습니다. 증조부이신 이춘영 동학농민혁명 참여자께서 갑오년 당시 거주하면서 활동하셨던 마을에 찾아와 선생님을 이렇게 보니 한층 더 의미가 새롭습니다. 선생님 선친께서 역사학자 이이화, 이상식 교수님 등과 교우하면서 광주전남지역 특히 장성지역 동학농민혁명 관련 사실을 연구조사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근년에는 서울에서 생활하시다가 선생님께서 이곳 고향으로 내려와 정착하면서 장성지역 동학농민혁명 관련 학술대회나 장성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창립 등에 아끼지 않고 지원과 협조를 해주셔서 동학농민혁명 정신선양에 많은 기여를 하시고 계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먼저, 녹두꽃 독자들을 위해 선생님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A 제가 여기 내려온 지는 5년이 되었습니다. 서울에서 37년간 직장생활을 했어요. 서울에서 생활할 때 늘 인젠가는 고향에 내려와 증조부님께서 참여하신 동학농민혁명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는 일에 기여하면서 말년의 생애를 마무리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쉽지 않아 5년 전에서야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저는 동학농민혁명유족회와 상의하여 이차 춘자 영자 증조부님의 위패를 정읍 황토현전적지에 자리한 구민사에 모시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Q 정읍 황토현전적지 전봉준장군 동상 바로 옆에 건물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 곳에 언제 증조부님의 위패를 모셨는지요?



A 3년 전인가? 아마 동학농민혁명 120주년이던 2014년이었을 거예요. 그때 제 증조부님을 포함하여 서른여덟 분인가? 하여튼 그렇게 위패를 함께 모셨어요. 5년 전에 제가 여기 장성에 내려와서 보니까 지금은 행정구역상 광주로 되어 있더라고요. 하지만 옛날에는 장성군 황룡면이었습니다. 옛날에는 이곳이 장성의 끝머리 마을이라고 해서 '토말' '토말마을' 그렇게 불렀지요. 흙토(土)자에 끝말(末)자. 증조부님께서 여기 살면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신 거죠. 그리고 조부님과 아버님께서 여기서 살다가 지금은 돌아가시고 안 계시지요. 작은아버지는 지금도 이곳에 살고 계십니다. 5년 전에 제가 서울생활을 정리하고 여기 내려 와가지고 이이화 선생님,

이상식 교수님 등과 상의해서 학술대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우리 동학농민군 후손들이 많은 경우 지난 100년 동안 반란군 후손으로 핍박을 받아온 탓에 가계들이 여의치 않아요. 그나마 저는 사업도 하고 그래서 조금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편이라서 학술대회를 여는 경비를 내기도 하고, 지난 봄 장성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창립을 위한 총회 때도 제가 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목숨까지 내놓으신 증조부님을 생각하면 아깝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Q 네, 장성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창립에 선생님께서 큰 도움을 주셨다는 얘기는 이상식 교수님께 들었습니다. 지난 5월에 전국동학농민혁명유족회가 사단법인으로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았는데, 유족회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계시지요?

A 네, 앞서도 얘기했습니다만 동학농민혁명이 끝난 때로부터 특별법이 제정된 2000년대 초까지 참여자 후손들은 숨죽이고 살아야했습니다. 그래서 형편들이 참여의지들 못해요. 그나마 제가 좀 경제적으로 여력이 있는 것 같아서 힘닿는 대로 애국애족 정신을 선양하는데 보탬이 될 일이라면 지원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전국 동학농민혁명유족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기회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곳 장성지역에서부터 활동을 시작했는데, 앞으로 서울의 동학농민혁명 유족회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Q 매년 5월 27일에 장성 황룡전적지에서 동학농민군 승전기념식을 갖지요? 1894년 갑오년 당시 음력으로 4월 23일 서울에서 파견되어온 경군을 크게 물리친 날을 양력으로 환산해서 매년 승전기념식을 열어왔지요? 1994년부터 광주전남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를 창립시킨 이상식 교수님이 중심축이 되어서 광주광역시, 장성군, 천도교 등이 힘을 모아 행사를 추진해오고 있는데, 올해 기념식도 성대하게 열렸었지요? 그때 행사장에서 선생님을 뵈고 오늘 이렇게 뵈게 되었네요. 올해 행사에도 선생님께서 큰 힘이 되어주었다고 이상식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던데...

A 제가 5년간에 걸쳐서 제 자비로 지원을 했습니다. 무슨 행사를 하나 치를려면 회의하라 행사 준비하라 돈이 꽤 들어가잖아요? 올해도 지난 5월 27일 날 열린 제 123주년 장성황룡승전기념식 때도 돈이 꽤나 들었습니다. 장성군에서 지원을 했지만 500만원 밖에 지원이 안 되어... 그러다보니 제가 좀 힘을 보탤했습니다. 참가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비용만해도 400만 원 정도 드는데... 부족한 경비는 제가 보충도 하고 그랬습니다. 동학농민혁명 정신 선양사업을 추진하는데 참가자들에게 “회비도 내고, 당신들 밥값도 내고 그래야합니다” 그러면 사람들 참가가 크게 줄어들기 마련이지요, 그래서 장성황룡 승전기념식에 들어가는 비용은 제가 좀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Q 증조할아버지이신 이춘영 장군께서 장성황룡전투에서 장태를 무기로 활용하여 서울에서 내려온 경군을 물리치는데 큰 공을 세우셨다고요?

A 저희 증조할아버지께서 갑오년 당시 장성지역 동학접주셨고, 총사령관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집강소도 증조부께서 거주하시던 토말마을에 설치되었다고 해요. 장성이 말입니다. 광산김씨, 울산김씨, 변씨, 기씨 등의 양반행세가 보통을 넘는 고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증조부가 계시던 이곳 토말마을은 완전히 동학군의 세상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강소도 이곳 토말마을에 설치했다고 이이하 역사학자나 이상식 교수님 그런 분들께 얘기를 들었습니다.

Q 장성지역 동학농민혁명 정신 선양사업 추진에 있어서 선생님께서 많은 기여를 하고 계시는데, 선생님께서 근년에 큰 수술을 하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선생님 수술했다는 소식을 이상식 교수님께 듣고 걱정했었는데, 지난 5월 황룡 승전기념식 때 건강한 모습을 보어 반기웠습니다. 선생님 건강상태는 현재 어떻습니까? 완전히 회복되신 건가요?

A 제가 작년 11월 영동세브란스 병원에서 뇌종양 수술을 했습니다. 이게 뇌종양이라는 게 무섭더라고요. 한쪽 몸을 사용할 수가 없었는데, 제가 동학농민혁명 정신 선양사업에 관심을 기울이니까 우리 할아버지를 비롯한 동학농민혁명 영령들께서 살펴주셔서 그런지 이렇게 다시 건강을 되찾아 지금은 아주 호전되어 좋습니다. 수술을 했던 영동 세브란스 병원 의사들도 이렇게 병세가 호전된 것은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일이라고, 세브란스 병원에서 뇌종양 수술을 수도 없이 했지만 이렇게 기적으로 호전되어 회복된 경우는 처음이라고 말하더군요.

Q 참, 다행입니다. 정말로 갑오선열께서 살펴주신 것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웃음) 선생님께서는 증조부님 활동에 대해 주로 어떤 경로를 통해 들으셨나요? 그리고 기억나는 얘기가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A 할아버지에게 아버지가 듣고, 아버지나 작은 아버지들께 저는 증조부님 얘기를 들었습니다. 증조부께서 장성황룡강전투를 한 다음에 전주성을 점령하는 일에도 함께했다고 해요. 그런 다음에 잡으러 다니니까 장성 토말마을 저쪽에 있는 수용산이라고 하는 곳으로 피신을 하셨다고 그래요. 증조부께서는 황룡강전투 이전에 있던 정읍 황토현전투에서도 참여했다고 들었습니다. 황토현전투 때는 장성에서 1,000명의 동학도를 데리고 가서 참전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소퐁이'라고, 우리 집 마부였다고 합니다. 그 시절에는 양반상놈, 말하자면 신분질서가 아주 확고했잖아요? 근데 동학도들이 이를 말도 안 된다고 하면서 모두가 평등하다고 말한 거잖아요? 우리 집안이 '경주이'가입니다. 양반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증조부께서는 양반, 상놈이 따로 있느냐 말도 안 된다고 하시면서 그 마부인 '소퐁이'라는 사람을 동학에 입도시켜주고, 접장으로 대했다고 해요. 아주 획기적인 일이잖아요. 안 그래요? 우리 증조부께서는 남원으로 가서 최시형 2대 동학 교주에게 입도를 했다고 합니다

Q 동학농민혁명 전체 전개과정에서 전승으로는 황토현전투, 황룡강전투, 전주성 함락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학농민군이 승리한 전투는 다 나름대로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 것 같습니다. 황토현전투는 최초로 전라감영군을 크게 물리쳤다는 의미가 있고, 황룡전투는 서울에서 파견되어 내려온 조선의 정예부대인 경군을 크게 물리쳤다는 의미를 지니는 것 같습니다. 전주성 함락은 조선왕조가 생긴 이래 감영이 점령된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던 만큼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임금이 파견한 경군을 물리친 황룡전투도 그 의미가 남다른데 이 전투에서 동학농민군이 승리하는데 장태가 큰 역할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장태를 증조부이신 이춘영 장군께서 만들었다고 얘기되기도 하지요?

A 네, 원래 장태는 이방언 대접주가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분 활동지역은 저 아래 남해안 장흥지역이었잖아요? 여기는 장성입니다. 그리고 장태가 큰 것은요 길이가 6m, 높이가 3m 그랬다고 합니다. 그때 시절에는 교통수단이 좋지 않아서 이방언 장군이 장태를 만들어서 여기 장성까지 가지고 왔다고 보기는 어렵지요. 황룡전투에서 사용된 장태는 이곳 장성에서 우리 증조부님 지휘 아래 만들어진 것이 분명합니다. 그 당시에 장태를 제작하기 위해 대나무를 기증했다는 얘기가 후손들을 통해 전해지고 있는데, 지금도 그 후손 몇 분이 살아계세요. 그분들 얘기에 따르면 장태를 만들기 위한 대나무는 주로 장성 가정리라는 곳에서 가져왔다고 합니다. 이렇게 대나무를 옮겨와서 사람들이 장태를 엮었는데, 황룡 포전에 큰 가마솥

을 걸고 밥을 지어 주먹밥을 만들어서 장태를 엮은 사람들을 먹었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장성 황룡전투 때 사용한 장태는 저의 증조부 지휘 하에 이렇게 만들어서 전투 때 사용하여 대승을 거둔 것이지요. 그래서 증조부님을 장태장군이라고 말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후에 저의 증조부님 시신도 거두지 못해서... 후손으로서... 안타깝고 참 죄스럽고, 부끄럽고 만감이 교차합니다.

Q 이춘영 증조할아버지께서 황룡강 전투나, 전주성 전투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다는 이야기를 어느 분에게서 들으신 것입니까?

A 저희 할아버지께 들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 존함이 귀자 익자이신데, 증조부님의 큰아들이었습니다. 조부께서는 3.1독립운동 등으로 전라남도 인물로 되어있습니다. 그분이 살아계실 때 고려대학교 사학과 교수들이 오셔서 며칠 계셨고, 또 역사가 이이화 선생님께서 이곳에 내려와서 저희 집 큰집에서 며칠씩 묵으면서 자료를 조사하거나 할아버지와 대화를 나누시곤 하셨습니다. 이이화 선생님과 저희 할아버지 두 분이 사진 찍은 것도 있고... 이이화 선생님이 한두 번 오신 게 아니라 아주 자주 오셨고, 여기 오시면 며칠 씩 계시고 그러셨어요.

Q 그러면 증조부님에 관한 얘기를 할아버님께 직접 들으신 거네요. 선생님은 장남이신가요? 증조부님이 이춘영, 조부님은 귀익, 아버님 합자는 어떻게 되세요? 주로 동학농민혁명 관련된 내용은 어느 분께 들으셨나요?

A 제가 장남이자 집안 장손입니다. 아버지는 현자 종자를 쓰셨습니다. 1990년대 에 돌아가셨지요. 우리 할아버지께서도 장손이셨는데, 천도교 광산교구장을 지내셨지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둘째였는데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 대를 이어서 천도교 광산교구장을 하셨어요. 증조부님에 대한 얘기는 아버지께 많이 들었고, 작은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는데 그분께도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인터뷰에 함께하려 했는데 일이 있어서 가지고 같이 못 오셨어요. 작은아버지께서 할아버지께 들은 얘기들을 제게 많이 해주셨지요. 증조부께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얘기를 많이 알고 계십니다. 그분 얘기로는 여기 장성 월산봉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전투가 벌어져서 장태를 밀면서 전진하여 경군을 물리쳤다고 얘기하더라고요.

할아버지께 들었다고 그러면서요, 대포도 빼앗고 총도 많이 빼앗았다고 해요. 지금 장성 우시장 있는 곳에서 전투가 시작되어서 월산봉에서 총알을 피하기 위해 장태를 굴리고 내려오면서 경군을 공격했다고 합니다.



Q 황룡전투 때 무기로 활용된 장태에 대해 들은 얘기는 없으신지요?

A 총알을 피하기 위한 무기로 사용하기 위해 장태를 크게 제작했대요. 큰 것은 가로 6m, 세로 3m라고 들었어요. 그 안에 벗짚은 잔뜩 집어넣어서 총알이 날아와도 뚫지 못하게 만들었대요. 그렇게 해서 장태를 밀고나가는 사람 등에는 ‘궁궁을을’부적을 써 붙였다고 해요. 그렇게 하면 총알도 피해간다고 했다 그래요. 지금 생각하면 좀 어이없는 말 같지만 사람의 믿음이라는 게 작용하는 바가 적지 않잖아요? 실제로 장태는 이 전투를 승리로 이끄는 데 큰 역할을 했대요. 경군 대장 이학승을 전시시키는 등 크게 전공을 올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장성 황룡전투지 한쪽에 이학승 비가 서 있잖아요? 이렇게 황룡전투를 승리한 다음 증조부께서는 전주성을 함락시키는 전투에도 참가했다고 해요. 그러다가 나중에 동학농민군이 우금치전투에서 패배한 이후 후퇴하면서 관군에게 쫓길 때 이곳 토말 인근 수련산(주민들이 수용산이라 부르기도 함)으로 피신했다고 해요. 장성에서는 제일 높은 산이 여기 수련산이지요.

Q 제가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백서』를 확인해보니 이춘영 증조부님은 참여자 등록이 되어 있는데, 그분의 후손은 등록되어 있지 않던데, 여기에 무슨 사연이 있는지요?

A 제가 동학농민혁명참여자 후손으로 등록이 안 되어 있다고 하는 얘기를 유족회 이기곤 회장님께 들었어요. 증조부께서 참여자 등록이 되어 있는데 그 후손이 유족으로 등록이 안 되어 있다는 게 이해가 잘 되지 않았는데, 나중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이화 선생님이나 이상식 교수님 등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살아생전에 그 일을 추진해서 증조부께서 참여자로 등록되지 않았나 싶어요. 90년대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바람에 연락이 끊겨서 후손 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그 무렵에는 벌여놓은 사업들 때문에 사실 여기에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먹고살기 바쁘고, 저희 할아버님이 손이 9남매인데 증조부께서 동학농민혁명을 하시다보니 재산이 없어서 학교를 한명도 보내지 못했어요. 그리고 할아버지께서는 상해 임시정부의 김구선생님께 독립운동을 하신다고 가서버리고, 일본 놈 밑에서는 글을 배울 필요가 없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는 돈이 없어서 집안이 몰락을 해 버렸어요.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난 당시에 집이고, 소고 다 팔아가지고 술을 길어서 동학농민혁명군들 밥을 해서 먹인 거예요. 황룡강 기슭에서 장터를 만들면서 그 사람들 식량을 대야 하니까... 저희 큰댁이 이쪽 위에 있는데 거기에 증조할아버지 관련 자료가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큰물이 저서 행랑채가 떠내려 가버리고 해서 자료가 하나도 남은 것이 없습니다. 예전에는 저희가 밥술 꽤나 먹고 살았는데 동학농민혁명군을 위해서 논이고 밭이고 다 팔아서 써 버리고 나니까 집안이 몰락해버린 것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살아계실 때 유족회 활동을 열심히 하셨어요. 저는 5년쯤 전부터 유족회 활동을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유족회 장성지부장이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유족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손으로 등록할 여건이 갖춰지면 추진하려고요.

Q 장성 기념사업회의 조복례 회장님이나 이개호 국회의원님, 지자체와 협력하셔서 기념사업이 좀 더 활성화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유족께서 다들 연세가 많으셔서 건강을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A 이이화 선생님이나 이상식 교수님 등등 그동안 기념사업을 해오신 분들, 그래서 특별법을 제정하도록 견인한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펼쳐지는 기념사업단체 기념행사나 우리 기념재단에서 추진하는 정신 선양사업에 대해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고 또 기꺼이 참여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유족들이 좀 더 일찍 적극적으로 이런 일들을 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편으로는 미안하기도 하구요. 기념재단에서 추진하는 정신 선양사업이 적극적으로 활성화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고, 기념재단 발전 또한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렇게 찾아뵙서 인터뷰해주셔서 고맙습니다.

Q 선생님 무엇보다도 건강을 각별히 챙기셔야 합니다. 앞으로 장성지역 기념사업이 활성화 될 것 같아 기분이 참 좋습니다. 선생님 긴 시간 동안 인터뷰에 응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광주·전남지역 유적지를 찾아서

문병학 | 기념재단 기념사업부장





▲왕동전승기념공원 전경

전남 장성군 / 조선의 최정예부대 경군(京軍)을 물리친 곳 광주광역시 / 나주 수성군 저지, 일본군 남해안 상륙에 대비한 든든한 후방기지

전남 장성군 / 1894년 정월 고부농민봉기를 도화선으로 무장에서 기포한 동학농민군은 고부관아를 재점령한 후 백산대회를 통해 대오를 확대재편하고 전주성 공략에 나섰다. 그러나 전라감영군 남진과 경군(京軍) 파병이라는 상황을 맞아 부대를 되돌려 남하南下하면서 황토현에서 전라감영군을 물리치고, 정읍 흥덕 부안 고창 무장 영광 함평 무안 등지를 거쳐 4월 22일 장성으로 들어왔다. 이어, 23일 장성 황룡에서 홍계훈이 이끄는 경군과 격전을 벌여 이학승(李學承, 경군 대관)을 전사(戰死)시키는 등 대승을 거두었다.

광주광역시 / 동학농민혁명 전체 전개과정에서 광주지역은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지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동학농민혁명 전체를 다루는 연구가 중점적으로 다루어지면서 상대적으로 광주광역시, 무안군, 영암군, 함평군 등지의 역사적 의미가 제대로 조명되지 못하였다. 이들 지역이 주목받아야 할 이유는 이 지역 출신의 농민군이 많았다는 점 이외에도 나주지역을 중심으로 보수 세력의 힘이 강하여 농민군의 힘이 다른 지역에 비해 강하게 미치지 못했다는 사실 때문이다. 따라서 광주지역은 동학농민군이 2차 봉기를 단행했을 때에도 손화중 휘하의 동학농민군이 북상하지 않고 이곳에 남아 나주 수성군을 제압하기 위해 침산, 선암, 두동, 죽산, 용진산 등지에서 치열하게 전투를 벌였던 장소이기도 하다.

동학농민혁명군 승전기념탑 / 기념공원 (황룡전적지)

▣ 사적 제406호

▣ 전남 장성군 황룡면 신호리 산 1-1, 장산리 359 일대

고부농민봉기 후 무장에서 포고문을 공포한 동학농민군은 고부관아를 재점령한 후 백산에서 부대를 확대재편한 후 전라감영이 있던 전주성 공략에 나섰다. 그러나 전라감영군과 서울에서 경군이 파견되어 진압하러 내려온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동학농민군은 진로를 바꾸어 다시 남행하였다. 정읍 고부 흥터 부안 고창 무장 영광을 차례로 석권한 농민군은 4월 16일 함평에 이르러 함평과 무안 일대에서 5일간 머물렀다. 이후 4월 21일 함평을 떠나 장성과 나주 쪽으로 향하다가 나주의 군사력이 더욱 강화되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장성으로 이동하였다. 이때 초토사 홍계훈은 4월 21일 영광에 도착하여 총제영(總提營)의 증원군 800명을 기다리면서, 22일 이학승(李學承)·원세록(元世祿)·오달영(吳達泳)에게 총병력 470명 중 300명과 대포 2문을 내어주며 장성 등지로 가서 농민군의 정황을 살피게 하였다. 이렇게 하여 4월 23일 관군이 장성 월평(月坪)에 도착하였고, 황룡촌(黃龍村)의 농민군과 맞닥뜨려 오후 2~4시경 전투가 벌어졌다. 시기충천한 7~8천명의 동학농민군은 극로백(流虜伯, 크루프 소총) 등 압도적인 화력을 가진 관군을 상대로 대승을 거두었다. 대나무로 만든 장태 등을 이용한 이 전투에서 동학농민군은 관군의 선봉장 대관 이학승을 전사시켰는가 하면 대포 2문과 양총 100여 점을 탈취하였다. 황룡전투는 농민군의 의식성장에도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황룡전투 이전까지 농민군의 의식수준은 대체로 “스스로를 지키는데 불과하였고, 감히 드러내놓고 관군과 대적하지 못하”거나 “어찌 감히 상명(上命)을 받은 경군에게 저항 하겠다고 하십니까”라며 국왕의 군대, 곧 경군과의 대결을 의식적으로 피하려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황룡전투는 농민군의 의식에 큰 전환점이 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황룡전적지에는 1994년 장성군과 광주전남기념사업회가 기념공원(부지 10,223㎡)을 조성하였다. 기념공원에는 높이 30m, 직경 2.5m에 이르는 죽창 모양의 ‘승전기념탑’이 우뚝 서 있고, 진입로를 비롯하여 주차장, 테라스, 화장실 등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다. 공원 옆 과일 밭에는 1897년 유림 측이 세운 대관 이학승 순의비가 서 있다. 한편 이곳은 1998년 국가사적(제406호)으로 지정되어 장성군에 의해 잘 관리되고 있다.



▲ 증좌승지이공학승순의비(贈左承旨李公學承殉難碑)

광주집강소 터 (관아 터)

▣ 광주광역시 동구 광산동 13 일대

광주집강소가 설치된 곳은 광주관아 터였다. 이 같은 사실은 「순무선봉진등록」 등의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당시의 광주관아 위치는 현재 아시아문화전당과 옛 전남도청 부근, 옛 상무관 일대로 추정하고 있다.

동학의 광주지역 전파과정은 명확하게 확인되지는 않고 있지만 1894년 3월(음력 26일경)에 고부 백산에서 열렸던 백산대회 때 강대열, 박성동, 김우현 등이 많은 농민군을 인솔하여 참석한 것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갑오년 이전 광주지역에 동학이 전파되어 적지 않은 교도들이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나아가 집강소 시기 광주지역은 손화중과 최경선이 통할했음을 알 수 있다. 1894년 9월 삼례 2차 봉기 단행 때 전봉준은 광주에서 집강소 활동을 벌이고 있는 손화중에게 삼례로 올라오라는 친필 편지를 보내기도 했으나 일본군이 바닷길로 해안을 공격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광주에 남겨두었다.(전봉준 공초)



▲ 광주관아 터 부근 / 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부근

용진산전투지

▣ 광주광역시 광산구 선동 산69 / 광산구 지산동 산4 일대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재 용진산은 동학농민혁명 당시 손화중이 이끄는 광주지역 농민군과 나주 수성군 사이에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던 곳이다. 이 전투상황에 대해서는 「금성정 의록」 「난파유고」 등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집강소 시기 때는 최경선, 2차 봉기 이후에는 손화중과 오권선의 농민군이 나주를 공격했다가 실패하였다. 이후 10월 15일 무렵부터 나주 동쪽 20리 지점에 위치한 침산(岾山)과 송정리 옆 선암(仙巖)과 북쪽의 용진산(龍津山) 일대에서 동학농민군과 나주 수성군 사이에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으나 농민군은 패하여 광주로 후퇴하였다. 또한 11월 초에도 손화중, 최경선, 오권선 등은 또다시 나주성을 공격하기 위해 광주 두동 등지에 진을 치고, 손화중·최경선·오권선이 이끄는 농민군은 북쪽에서, 무안 배규인이 이끄는 농민군은 서남쪽의 함평 고막포에서 동시에 나주를 공격하기로 했다. 그러나 나주목사 민종렬이 11일 오후 수성군을 보내 용진산의 농민군을 선제공격하였다. 11월 13일 아침, 나주 수성군은 용진산 중봉(中峯)에 자리를 잡고 산봉우리에 있는 농민군을 향해 어지럽게 포를 쏘면서 공격하였다. 수적으로는 농민군이 우세하였으나 대원포와 천보총으로 무장한 수성군에 밀리고, 추위와 허기에 지친 농민군은 용진산 북쪽 사면을 타고 후퇴하였다.



▲ 용진산 원경

침산전투지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산동 446-2

현재의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산 동곡동 침산마을은 동학농민혁명 당시 손화중이 이끄는 광주지역 농민군과 나주 수성군 사이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던 역사의 현장이다. 당시 나주는 호남에서 유일하게 농민군이 점령하지 못한 고을로 목사 민종렬 이하 향리가 중심이 되어 조직된 수성군이 인근 지역의 농민군까지 공격할 정도로 반농민군 세력이 강력하였다. 따라서 손화중은 나주성을 공략할 계획을 세우고 음력 10월 15일 경 이후 광주 농민군과 오권선이 이끄는 나주 농민군을 연합하여 나주 동쪽 20리 침산(衽山)과 송정리 옆의 선암(仙巖), 북쪽 용진산(龍津山) 일대에 진출했다. 음력 10월 20일 나주목사 민종렬(閔鍾烈)은 농민군들이 나주를 공격할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하고 600여 명의 수성군을 출전시켰다. 이렇게 해서 10월 21일 나주 수성군 도통장 정태완은 침산에 도착하였다. 이때 농민군 수천 명은 침산 봉우리에 진을 치고 있었으나 나주 수성군이 쏘아대는 대포에 밀려 후퇴하고 말았다. 이어 11월 11일 손화중 휘하의 농민군은 나주 북쪽 40리 북창(北倉)등지에 모여 다시 전투를 벌였으나 정태완이 이끄는 나주 수성군에 밀려 후퇴하여 광주로 후퇴하였다.



▲ 마을 동쪽 건너편에서 본 침산

광주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 광주광역시 남구 이장동(泥場洞) 216번지 일대

동학농민혁명기념비, 광주동학농민혁명기념탑 등이 세워져 있는 이 기념공원은 2016년 6월 3일 준공되었다. 중앙에 설치된 기념탑은 햇불을 상징하는 조형물로 제작되었고, 뒤편에는 검은 돌비를 설치하였다. 돌비에는 동학농민군 4개 강령, 동학농민혁명 역사적 의의 등이 새겨져 있다. 이곳 이장동은 동학농민혁명 당시 전투가 벌어진 현장은 아니지만 보수적인 향토정서가 강했던 나주에 인접한 곳이어서 농민군 활동이 주목되는 곳이다. 갑오년 당시 삼형제(고광문·고광인·고광동)가 나란히 동학농민혁명에 참가하였는데 그 삼형제의 고향이 바로 이곳 이장동이다. 삼형제 중 맏이었던 고광문의 증손 고영두 소유 땅에 광주광역시 남구청 등이 지원하여 기념공원이 조성되었다.



▲ 광주동학농민혁명 기념탑 (전경)



▲ 동학농민혁명기념비



▲ 이장마을 입구 표지석

참고자료

- 『오하기문』, 역사비평사, 1994.
- 『전봉준과 그의 동지들』, 역사비평사, 1997.
- 『동학농민혁명사 일지』, 참여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 2006.
- 『동학농민혁명 국역총서·1』, 『兩湖招討謄錄』, 참여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 2007.
- 『동학농민혁명 국역총서·8』, 『兩湖右先鋒日記』,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2010.
- 『동학농민혁명 국역총서·12』, 『全琿準 供草』,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2014.
-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및 기념시설물 현황조사』,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2011.
- 『전남지방 유적지 및 기념시설물 현황조사』,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2011.

광주·전남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를 찾아서

일 시_ 2017년 8월 11일 (금), 10:00~12:00

장 소_ 광주·전남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사무실

대 담_ 이상식 | 광주·전남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회장
문병학 | 기념재단 기념사업부장



문병학

이번호 지역대담은 지난 1990년대 전남대학교 사학과에 재직하시던 때부터 줄곧 광주·전남지역의 동학농민혁명에 깊은 관심과 열정을 쏟아 온 이상식 선생님과 갖게 되었습니다. 더위가 유난스러운데 선생님 건강은 어떠신지요? 먼저, 녹두꽃 독자들을 위해 소개와 함께 근황을 말씀 해주십시오.

이상식

아닌 게 아니라 올 여름은 유난히 더운 것 같습니다. 제가 나이를 좀 먹어서 그런지... 여름 넘기기가 만만치 않네요. 지난번에 이이화 선생님을 만났는데 전봉준 장군 순국 터인 서울 종로구에 동상건립을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문 선생이 서울시장에게 건의해서 첫 단추가 아주 잘 끼워졌다고 좋아하시지만, 하여간 문선생도 더위에 건강 잘 챙기세요.

문병학

선생님께서 1990년대 초부터 광주·전남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창립을 준비하셨지요? 광주와 전남지역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추진 필요성 등을 갖게 된 배경이나 계기 그런 것이 있었는지요?

이상식

1990년 초반기에 이이화 선생님 등과 만나면서 동학농민혁명 100주년 기념사업에 대해 얘기하곤 했어요. 그러다가 1992년부터 광주·전남 기념사업회 창립을 준비했지요. 그래서 1993년 겨울에 전주에서 창립된 동학농민혁명백주년기념사업단체협의회 결성 때부터 활동을 시작했어요. 요즘 저는 100살까지 살아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산 100년의 역사라는 책을 꼭 남기고 싶어서예요. 가팔랐던 한국 현대사를 살아온 역사를 공부한 사람인 제가 그것들을 기록으로 남길 필요가 있겠다 싶어요. 그러려면 100살은 무조건 살아야 하는데(웃음) '내가 산 100년의 역사'를 출판하고 죽더라도 죽어야겠다 싶어요.



문병학

네, 선생님 그 출판기념식 때 저도 꼭 참석하고 싶습니다.(웃음) 동학농민혁명 전개과정에서 장성 황룡전투가 갖는 의미가 남다른 측면이 있다고 들 말합니다. 서울에서 파견되어 내려온 경군을 물리친 전투가 바로 황룡전투인데, 황룡전투가 갖는 역사적 의미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이상식

대학에서 역사를 가르칠 때 학생들을 데리고 장성 황룡전적지 답사를 자주 다녔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황룡전투야말로 한국 근대사의 전환점을 가져온 중요한 하나의 계기였다는 점을 설명해주곤 했어요. 황룡전투는 막강한 화력을 갖춘 서울의 정예부대를 보잘 것 없는 죽창이나 화승총 몇 자루가 고작인 동학농민군이 물리친 전투예요. 동학농민군이 이 전투에서 승리함으로써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을 갖게 되었다고 말해도 그다지 틀린 말은 아니지요.

문병학

갑오년 당시 광주 인근의 나주(羅州)가 동학농민혁명을 반대했던 보수 세력이 아주 강대했던 곳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동학농민군이 전주성을 함락시킨 후 각 지역으로 내려가 폐정개혁을 단행하던 때도 나주는 완강했지요. 그래서 삼례 2차 봉기를 단행했을 때 손화중 휘하 농민군이 광주에 남아 나주의 보수 세력과 후시 모를 일본군의 남해안 침략 등을 대비하였습니다. 이렇듯 광주전남 지역은 동학농민혁명 전체 전개과정에서 독특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이점에 대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

장성·영광·함평·담양 등 서·남해안 쪽 동학농민군은 2차 봉기 때 북상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문 선생이 얘기한 것처럼 일본군이 남해안 쪽으로 진격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이를 대비하기 위함이었지요. 그리고 나주 수성군의 존재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농민군이 모두 북상하게 되면 강성했던 나주 수성군이 역으로 호남지역을 휘젓고 다닐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었으니까요. 갑오년 당시 동학농민군에게 나주성은 함락되지 않았지만 주변의 동학농민군 세력은 대단했습니다. 비록 나주 관아 등지에 집강소를 설치한 것은 아니지만 나주에도 농민군 지도자 오권선(吳權善) 장군 거소에 집강소가 설치되어 폐정개혁을 단행했었습니다. 나주 집강소가 설치되었던 곳은 나주의 삼도지역인데, 용진산 바로 아래입니다. 이곳에 오권선 장군 집이 있었던 곳이고 그 휘하 농민군의 주요한 활동무대였습니다. 비록 동학농민군이 나주읍성을 장악하지는 못했지만 그 외각 지역은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지요.

문병학

현재 광주와 전남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념사업가 상당히 많지요? 선생님께서 회장을 맡고 있는 광주·전남기념사업회를 비롯해서 무안기념사업회, 장흥기념사업회, 함평기념사업회, 장성기념사업회 등이 생각나는 데, 광주·전남기념사업회가 1993년 가을에 금호문화예술회관에서 창립되었지요? 창립대회를 마치고 황룡전적지를 답사했던 기억이 생생한데 당시의 상황들을 얘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

1990년 초반기만 해도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대중적인 인식은 '동학난'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따랐지요. 특히 장성지역은 예로부터 호남의 양반세력이 가장 강했던 곳입니다. 장성의 울산김씨, 광산김씨, 행주기씨, 연안김씨, 황주배씨 등 5대 성씨 가문이 향반으로써 대단한 영향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반대가 심했지요. 그러나 황룡전투가 갖는 의미가 워낙에 크기 때문에 어려움을 무릅쓰고 적극적으로 기념사업 단체 창립을 추진했습니다. 당시 장성군 지역에는 “반란군을 기념하는 것이 말이나 되는가?”이런 분위기가 강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전국적으로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 분위기가 형성된 것에 힘입어 광주·전남기념사업회를 창립할 수 있었지요.

문병화

광주·전남기념사업회 창립 후 곧바로 황룡전적지에 기념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셨지요? 황룡전적지 공원조성에 필요한 재원 마련 등 만만치 않았을 텐데 어떻게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는지요?



이상식

지금 생각해도 참 그때 제가 용감했어요. 완전히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에 가까웠어요. 지금 생각해도 참 큰일이었다 싶어요. 당시 시대적 분위기가 지금과는 사뭇 달라서 전승기념탑 건립을 준비하면서 자칫하면 감방에 갈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했어요. 그런 것들을 각오하고 나니 용기백배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적극적으로 사업구상을 현실화하기 위

해 백방으로 뛰었습니다. 그 결과 전라남도로부터 2억 원, 장성군으로부터 1억을 지원받았지요. 부족한 3억 원 정도는 지역에 기반을 둔 사업체들 고려시멘트 등등을 거둬 찾아다니면서 설득해서 기금을 모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정하게 기념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 경비를 마련하고 나니 다음은 기념공원을 어떻게 조성하는가 하는 문제가 나섰습니다.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다가 결국 기념공원 설계공모를 택했지요. 공모작품들 중에서 조각가 나상욱 씨가 제출한 죽창 모형의 승전탑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공모작품 심사위원들에게 동학농민군의 기상을 잘 형상화한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은 작품입니다. 그 작가가 나중에 5.18광주망월동 국립묘지 상징탑 제작자로 선정되기도 했지요. 버려진 야산과 논밭이 얼크러진 황룡전적지를 정비할 때 여러 일화가 있습니다. 그중 빼놓을 수 없는 일화가 한 가지 있는데, 당시에 향토사단 사단장이었던 분이 역사에 관심이 참 많은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향토사단에서 『향토수호역사서』를 편찬한다고 제게 도움을 요청해온 적이 있어요. 그런 인연으로 제가 향토사단장과 가끔 만날 일이 있었어요. 그 무렵 제가 황룡전적지 기념공원 조성에 몰입해있었기 때문에 그 사단장과 만난 자리에서 황룡전적지 정비가 고민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는 얼마 지나지 않아 연락을 받았는데 그곳 정비를 향토사단에서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머지않아 포크레인 등 군장비들을 동원해줘서 어렵지 않게 전적지를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었어요.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났는데, 기념공원이 조성된 후 그 사단장이 누군가로부터 투서인지 편지를 받아 곤경에 처했습니다. 조선의 반란군 승전기념공원을 조성하는데 대한민국 정규군이 장비를 빌려줬다는 이유로 좌천이 된 것입니다. 것이 말이 안 된다는 것)내용이었습니다. 그 일로 결국에는 사단장 자리에서 좌천되었습니다. 그 무렵 사단장을 만날 일이 있었어요. 그 자리에서 제가 “인간사 세웅지마(英雄之馬)라고 하지 않던가요 너무 낙담하지 마세요”라면서 거듭 죄송하고 고맙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사단장이 좌천된 지 그리 오래지 않아 정부가 바뀌었고, 바뀐 정부에서 좌천되었던 자리에서 육군본부 인사국장으로 영전되면서 중장으로 승진까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역시, 갑오선열의 일을 중하게 여기는 사람에게는 동학농민군 영령들께서 보살피 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문병학

죽창 형태의 승전기념탑이 보는 이를 압도합니다. 탑 뒷면에 새겨진 '조선의 눈동자'라는 시도 의미심장하구요. 또한 탑 전면에 말을 타거나 혹은 장대를 굴리면서 진격하는 장면을 청동 부조로 생생하게 형상화 한 것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이 승전기념탑 건립 당시의 얘기를 좀 해주시지요.

이상식

죽창 형상의 이 탑을 보고 어떤 연구자 한 사람이 동학농민군 곧 죽창 이렇게 연계시키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 말하더군요. 그건 그 사람이 지나치게 편협하게 농민전쟁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 연구자의 생각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예요. 죽창은 군수물자가 적었던 6·25전쟁 때도 무기 대신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더욱이나 갑오년 제1차 동학농민혁명 때는 무기가 변변치 않아 농기구나 죽창 등으로 농민군이 무장하고 봉기했지요. 이걸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물론 농민군이 세력이 강대해지면서 관군에게 무기를 빼앗거나 관아의 무기고를 열어 무기를 갖추기도 했지요. 그래서 2차 봉기 이후에는 농민군도 상당수가 화승총이나 관군에게 빼앗은 총을 소지하기도 했고, 포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동학농민군과 죽창을 연계시켜 상징화 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도리어 사실관계에 대한 심각한 왜곡이자 편향입니다. 하여튼 죽창 모형으로 전승기념탑을 선정한 것은 당시 심사위원들의 만장일치 의견이었어요. 탑 뒷면에 새겨진 '조선의 눈동자' 그 시를 생각하면 지금도 애간장이 녹는 것 같습니다.(웃음) 곽재구 시인에게 시를 청탁했어요. 그런데 건립기공식이 임박해도 도대체 시가 써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애간장을 태우고 태우다가 준공식 임박해서야 시가 완성되어 겨우 새겨 넣었지요. 지금 생각해도 참...

문병학

동학농민혁명 황룡전승기념식을 거행해온 것이 1994년부터이니까 벌써 23년째지요? 20년 세월을 넘도록 일관되게 어떤 일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이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닌데, 보람과 함께 참 어려움도 많으셨지요?

이상식

그렇지요. 생각해보면 참 많은 사람들에게 신세를 졌네요. 그동안 장성 지역 유지 분들이나 장성군 각급 기관과 농민회, 농업경영인회, 부녀회 등등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신세를 졌네요. 신세라기보다는 그분들이 누구보다도 황룡전적지가 갖는 역사적 의미를 알고 긍지를 가진 분들이기 때문에 지원해주셨던 것 같아요. 행사를 매년 준비해야하는 제 입장에서는 고맙고 고마운 분들이 아닐 수 없지요. 근년에 들어와서는 장성 지역에서 집주로 활동하면서 장태를 제작해 황룡싸움을 승리로 이끄는 데 큰 공을 세웠던 이춘영 장군의 증손 이공우 씨가 고향으로 내려와 생활하기 시작하면서 기념사업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참 고맙고 감사한 일이지요.

문병학

지난 해, 그러니까 2016년 5월이었지요? 광주 남구 이장마을에 광주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이 조성되었는데 그 일도 선생님께서 적극 관여하셨지요? 광주광역시 남구청의 지원과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후손인 고영두 씨 사재로 기념공원이 조성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장마을이 지난 역사적 의미와 함께 기념공원 조성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지요.

이상식

현재 그곳의 정확한 행정구역은 광주광역시 남구 이장리입니다. 이곳은 임진왜란 당시 의병장이었던 고경명 장군이 활동했던 유서 깊은 곳이기도 하지요. 그 후손인 고씨 문중에서 보기 드물게 3형제가 함께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했습니다. 대촌면 이장마을은 바로 그 고씨 삼형제의 고향이지요. 갑오년 당시 이곳 대촌면 일대는 동학농민혁명에 가담하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농민군 세력이 왕성했다고 합니다. 그런 까닭으로 동학농민군이 패배한 이후 이곳은 피해가 아주 컸다고 합니다. 다른 곳으로 피신했다가 끝내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한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문병학

근년 들어 기념사업을 이어갈 후계를 마련하지 못했다며 염려를 많이 하셨는데, 지난 봄에 장성지역의 뜻있는 분들을 한데 모아 장성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를 창립하셨지요? 그 창립식에서 축사를 대신하여 선생님께서 이제 광주·전남지역 특히, 장성지역 기념사업 추진을 위한 젊은 세력이 구성되었으니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하셨는데, 장성기념사업회 창립 경과와 향후 추진할 사업계획 등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

나이도 들고 그래서 활동력도 떨어지고 걱정이 많았어요. 황룡전적지가 기념공원으로 정비되었고, 국가사적으로 지정되어 관에서 관리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미완성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나이를 이렇게 먹어 버렸으니 걱정이지요. 그래서 장성지역의 여러 분들과 뜻을 모았습니다. 장성이 지역구인 이개호 국회의원을 비롯해서 장성군수님, 군의회 의장님, 여러 군의회 의원님 등등 여러분들이 힘을 모아주셨어요. 그래서 지난 봄에 성대하게 장성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를 창립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장성기념사업회는 황룡전적지나 그 인근에 부지를 마련해서 전시관을 건립할 것입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이나 이곳을 찾는 뜻있는 분들 그리고 관광객들이 황룡전적지에서 일어난 역사적인 사실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전시관 건립이 기념공원 조성사업의 화룡정점이지요.

이를 위해서 지금 이개호 국회의원 등과 장성군 및 시민사회단체 등이 한 마음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전시관을 건립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념재단에서도 많은 관심과 함께 적극 지원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문병학

끝으로 빠뜨린 말씀이나 꼭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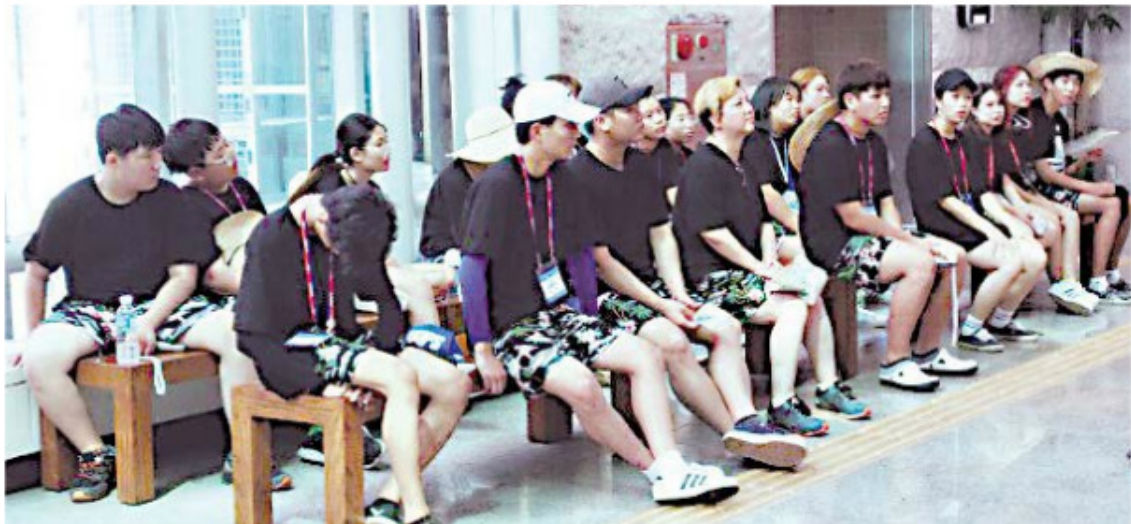
이상식

가능한 빨리 동학농민혁명과 광주민주화운동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열었으면 합니다. 동학농민혁명이 3.1운동, 4.19혁명, 5.18광주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 여기서 나아가 최근 광화문 촛불시민혁명의 모태라는 것은 나만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 역사학계의 근현대사를 전공하는 사람들이면 대체로 인정하는 일반적인 인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학술적으로 조명하는 학술대회를 개최하려고 마음먹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념재단에서도 적극적으로 관심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문병학

선생님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긴 시간 대담에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항상 건강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기념관 방문단체



1
2

- ① 지난 8월 2일 전주대학교에서 주최한 <중동역사교사연수모임> 참가자 25명이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을 방문하여 전시실을 둘러보았다.
- ② 지난 7월 25일 화강문화재단에서 마련한 역사현장탐방 프로그램 참가자 27명이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을 방문하여 동학농민혁명 역사적 의미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전시실을 둘러보았다.

기념관 방문단체



3
4

- ③, ④ 지난 9월 13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을 방문하였다.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에 따른 특별법 개정, 동학농민혁명 정신 헌법 전문 포함 추진, 국가기념일 제정 등 현안을 청취한 안 대표는 "동학농민혁명은 비폭력 평화혁명으로 3·1운동,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정신으로 이어져 왔으며, 국가는 그 정신을 계승할 책무가 있다"면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은 지역이 아닌 국가적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면서 국민의당이 앞장서서 공원조성 문제 해결을 위해 선두에 서도록 하겠다"고 말하였다. 이어 전시관 입구에 놓인 방명록에 "동학농민혁명 정신은 3·1운동, 4·19, 5·18, 6월혁명으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겠습니다. 2017. 9. 13, 국민의당 대표 안철수"라고 서명하였다.

언론에 비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월일(요일)	언론사명	기사제목
6월8일(목)	전민일보	동학농민혁명 대동제 열려
6월15일(목)	뉴스1	정읍시의회, 동학농민혁명 정신 헌법 전문에 포함해야
6월18일(일)	전북도민일보	남원시의원, 남원 동학농민혁명 기념공간 조성하자
6월22일(목)	전북도민일보	동학농민혁명 관계자들에 감사 마음으로 기탁
6월23일(금)	경향신문	동학농민혁명 스토리텔링 공모전 개최
6월28일(수)	경향신문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유물 샐니다
6월28일(수)	뉴스1	동학농민혁명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추진
6월29일(목)	전북일보	동학농민혁명 기록 세계유산 등재 철저히 준비
7월2일(일)	새전북신문	동학농민혁명기념관 유물 구입
7월2일(일)	전북일보	고창군, 이장단과 함께하는 동학혁명 유적지탐방 추진
7월4일(화)	전북도민일보	정읍시·수제천·상춘곡·동학혁명, 법적 지위 마련하자
7월5일(수)	뉴스1	정읍시, 문화관광해설사 '정읍시티투어'에 투입
7월5일(수)	전북일보	동학농민혁명기념관 등 6곳 민간위탁사무 '탁월'
7월12일(수)	전민일보	고창읍 이장단, 동학농민혁명유적지 탐방
7월14일(금)	국제신문	심국보의 동학이야기, 동학혁명 역사 다시 써야한다.

월일(요일)	연론사명	기사제목
7월15일(토)	오마이뉴스	동학단체, 의암 손병희 유허지 보존 요구
7월17일(월)	연합뉴스	동학혁명 주민자치기구 원평 집강소, 전복기념물 지정
7월20일(목)	전북도민일보	정읍시의회, 동학농민혁명 정신 헌법전문포함 개헌 건의 간담회
7월20일(목)	한겨레	이이화, 녹두장군 동상 서울에 세우면 동학과 촛불 만남이죠
7월22일(토)	연합뉴스	전북도의회, 동학농민혁명 정신 헌법 전문 포함 촉구
7월24일(월)	뉴스1	2017 청소년 동학캠프 24~25일 고창서 열려
7월25일(화)	광주일보	동학농민기념재단, 퓨전국악단 '나니레'공연
7월25일(화)	전민일보	고창군 1박2일 청소년 동학캠프
7월27일(목)	연합뉴스	전북도의회, 동학농민혁명 정신 헌법 전문 포함 촉구
7월28일(금)	전라일보	정읍동학농민혁명사업회, 전봉준 역사캠프 성료
7월31일(월)	정읍시사	고창 해리서 전국 청소년 동학캠프 개최
8월3일(목)	광주매일신문	장흥 동학역사캠프 오늘부터 열린다
8월4일(금)	뉴스1	고창군, 문화해설사 대상 유적지 탐방 교육
8월9일(수)	전북도민일보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 재추진키로
8월10일(목)	뉴스1	일본 퇴직교사모임, 전북지역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답사

월일(요일)	언론사명	기사제목
8월13일(일)	전북일보	동학농민혁명관련단체협의회, 남북간 평화 촉구 성명 발표
8월23일(수)	KNS뉴스통신	동학혁명헌법포함추진위, 동학혁명의 정신, 헌법 포함 마땅
8월23일(수)	프라임경제	태안군, 동학혁명의 횃불, 120여년 만에 다시 타오르다
8월24일(목)	동양일보	'태안 동학농민혁명의 횃불'출판
8월25일(금)	뉴스1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30일 섹소폰 동호회 '안단테'공연
8월25일(금)	뉴스1	"동학정신 헌법전문 포함 건의"고창군의회 28일 임시회
8월30일(수)	뉴스1	"동학혁명 정신 헌법전문 포함"정읍시민단체 서명운동
8월30일(수)	전라일보	녹두장군 전봉준 동상 서울 종로에 건립 추진
8월30일(수)	연합뉴스	서울 종로에 녹두장군 전봉준 장군 동상 건립 5억 모금 돌입
9월5일(화)	전라일보	유성엽 위원장, 동학농민혁명 정신 헌법전문 포함 요구
9월13일(수)	뉴스1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전액 국비로 조성해야"
9월13일(수)	전북일보	안철수 대표, 13, 14일 전북 민심 탐방
9월13일(수)	뉴스1	전봉준 장군 동상 건립 국민모금 설명회 정읍서 열려
9월13일(수)	뉴스1	동학농민혁명 정신 선양을 강조하는 안철수 대표
9월14일(목)	오마이뉴스	"동학은 포기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역사"

월일(요일)	언론사명	기사 제목
9월14일(목)	뉴스1	안철수 “동학정신 헌법전문에 포함되도록 노력할 것”
9월14일(목)	연합뉴스	‘동학농민혁명의 의미와 가치’찾는 학술대회 18일 개최
9월15일(금)	연합뉴스	‘동학농민혁명 정신 기리며 18~19일 123주년 기념대회 열려
9월15일(금)	뉴스1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동학농민혁명과 한국근현대사’학술대회 열려
9월15일(금)	광주일보	“동학농민혁명은 5·18로 이어진 민주주의 시원”
9월16일(토)	뉴스1	동학농민혁명 참무극‘천명’전주세계소리축제 초청 공연
9월17일(일)	국제뉴스	정읍에서 제123주년 동학농민혁명기념대회 열린다
9월17일(일)	세전북신문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다시 사람이 희망이다’국제학술대회 개최
9월18일(월)	동아일보	“동학농민혁명은 한국 민주주의의 시원”
9월18일(월)	전북일보	제123주년 동학농민혁명 기념대회 개막
9월19일(화)	금강일보	충남도교육청 동학농민혁명 교육 자료집 발간
9월19일(화)	쿠키뉴스	송하진도지사, 제123주년동학농민혁명기념대회 참석
9월19일(화)	브레이크뉴스	123주년 동학농민혁명 기념대회 ‘풍성’
9월19일(화)	전북일보	‘사람 존중’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세계화로
9월19일(화)	뉴스1	진윤식 고창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부이사장 공로상

서울 종로구에 전봉준 장군 동상을 건립한다

전봉준 장군 동상 건립기금 국민모금

건립기금 후원계좌

농협 : 301-0211-6928-21

예금주 : 사단법인 전봉준장군동상건립위원회

* 후원금 입금 후 사무국으로 꼭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 02-2135-1894 팩스 : 02-2135-1893

이메일 : donghak01894@daum.net 홈페이지 : www.전봉준1894.kr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전원말안길 2, 2층 (방배동)

사단
법인 **전봉준장군동상건립위원회**

